

#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환봉(고신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고신대학교의 신학 교수로서 33년 6개월의 긴 사역을 마감하면서 지나온 나의 신앙과 학문과 섬김의 여정을 되돌아본다.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었다. 은퇴를 바로 눈앞에 두고 그동안 함께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한다.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한 새로운 앞날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 1. 신앙의 여정

### 고향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중학교 2학년 어느 봄날에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찾아갔다. 실상 어느 친구 집에서 본 성화 속의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었던지 그 날 밤의 꿈에 선명하게 나타나 나를 부르시는듯하여 스스로 친구에게 찾아가 교회로 안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로 주일이 되면 내가 먼저 친구 집 앞에 가서 친구를 불러내어 함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합천읍에는 해인사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 절이 있었고 당

시 그 절의 소유주가 가까운 집안 어른이었으며, 합천 지역에 대지주 이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많은 시주와 불심으로 할머니는 절에서 존경받는 보살님이셨다. 우리 집은 초파일에 절에 가지 않아도 가족 각자의 이름을 새긴 큰 연등을 법당 중앙에 달아 줄 정도의 대대로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다. 자연스럽게 온 가족의 반대로 아버지의 매를 맞기도 하고 제사 때는 집에서 쫓겨나듯이 피해 다니다 식사를 겨를 때도 많았다. 어머니도 불심이 강한 집안의 맏며느리로 오셔서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함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림으로 형님을 낳으셨다고 철저히 믿고 계셨다. 그러니 어머니도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셨다. 그러나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제삿날 자식을 하루 종일 굶길 수는 없으셨던지 부엌에 데려가 제사상에 올리지 않은 음식을 따로 차려놓으시고 몰래 먹이시던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다. 어린 시절 부잣집 규수로서 몰래 뒷동산 대나무 숲길로 숨어 올라가 교회당에서 언문(諺文)을 익히고 주기도문도 외우셨던 어머니는 어느 정도 동정적이셨고 내가 집에서 계속 견딜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

### 소명

교회 출석을 시작한 이후 열심히 모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당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심으로 학생신앙운동 회지의 앙케트 설문지에 새해의 소망 한 가지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싶다”로 적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교회당 구석구석을 청소하였고, 주일학교의 보조교사와 서기로 봉사하기도 하고, 한동안 강 건너 작은 마을의 교역자가 없는 교회의 주일학교를 인도하기 위해 비포장 길에 자전거를 타고 여러 번 넘어지면서도 끈질기다녔다. 마침내 1966년 12월 17일 세례를 받았고 합천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학생신앙운동(S.F.C.) 회장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목사가 되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그 해에 고려신학교 이근삼 박사가 함천교회에서 개최되었던 “경남도 제직 부흥사경회”의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 겨울방학 동안 이였기 때문에 성가대를 도우면서 모든 집회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다. 집회 중반에 이르러 낮 성경공부를 마친 후에 교회 담임목사님이셨던 고 박찬규 목사님께서 일부러 나를 강사실로 데리고 가셔서 이박사님께 “앞으로 목사가 될 좋은 학생이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는 부탁과 더불어 나를 소개하셨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개인적 기도의 만남이 내 평생의 은사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 집회의 마지막 저녁예배 시간이었다. 이 박사님은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였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작은 계집아이의 이야기(왕하 5장)를 통하여 전도자의 사명에 대하여 설교하셨다. 성가대 좌석에 앉아 있던 나를 바로 응시하듯이 바라보시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던 그 외침에 온 마음으로 뜨겁게 응답하였던 그 감격이 지금도 내 마음에 새롭다. 당시에 어렵듯이 전도자의 꿈을 키우던 나에게 분명한 소명감을 안겨주었던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 거창

그 후에 함천고등학교에서 당시 기독교 학교로서 유명했던 거창고등학교로 편입하였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설립자이시기도 한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학창시절 내 신앙의 영웅과 사표이셨다. 또한 기독교 학교로서의 거창고등학교는 나에게 교육자의 꿈과 기독교 교육의 이상을 키워준 학교로서 장차 교수를 지망하게 된 동기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채플 시간 교장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외치셨던 “Let's make impossible possible!” “Boys, be ambitious!” “Never give up!” “We shall overcome!” “검은 보자기에 싸인 축복” 등의 말씀은 언제나 나의 지난 힘든 인생 길목에서 새로운 힘과

불굴의 용기가 되었다. 불의에 저항하라던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3학년 때에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완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겁 없이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 반대를 외치며 정신없이 거리에 몰려다니는데 언제 오셨는지 앞줄에 교장 선생님이 함께 스크럼을 짜고서 “We shall overcome!”을 같이 부르시면서 끝까지 행진해주셨다. 학교에 돌아 온 직후에 강당에 모여 교장 선생님의 인도로 나라를 위한 통성기도를 드리는데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 결국 선생님은 데모에 대한 책임으로 교장직을 박탈당하시고 다시 복직하시기까지의 힘든 과정을 겪으셔야만 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우리에게 불의에 대한 항거와 동시에 조국을 참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고신대에 입학 한 후에 마침 복음병원에 들리셨던 교장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시간을 내어 찾아 오셨다. 저의 어깨를 꼭 껴안으시고 말없이 송도의 학교 교정을 함께 걸어 주셨던 감격이 지금도 새롭다.

거창교회에 다니면서 오후 예배 때 마다 고 남영환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을 차례로 강해해 주신 것이 내 신앙의 뼈대를 더욱 튼튼하게 형성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 교의학 교수가 될 수 있는 학문적 동기도 제공해 주었다. 당시에 함께 그 교리강해를 들었던 두 어린 학생이 장차 고신과 총신의 교의학 교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남목사님은 전혀 모르셨을 것이다. 그 한 학생은 거창고등학교 동기생이고 학생신앙운동의 동지였을 뿐 아니라 한동안 공부방에서 함께 지내며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인 “사랑의 원자탄”을 돌려가며 읽고서 눈물로 함께 잠을 이루지 못했던 친구 최홍석 교수이다. 그도 올해 말에 총신대학교를 은퇴하게 된다.

## 고신대

1971년 고신대가 처음으로 4년제 정규 대학인가를 받은 해에 신학과에 입학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온 집안의 반대와 더불어 대학공부를 시켜줄 서울에 계신 형님이 입학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시면서 그 돈으로 내가 다시 재수를 하여 서울 명문대에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모든 재정지원을 단절하겠다는 통보를 하셨다. 그러나 나는 소명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입학금만 가지고 부산 송도에 올라왔다. 고향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지원과 합천교회 출신 여집사님의 도움으로 과외수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겹게 신학공부를 시작하였다. 아르바이트 후에 기숙사에 돌아와 너무 피곤하여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들곤 했고 어떤 때는 식당의 식권이 없어 밥을 굶기도 하였다. 그러나 존경하던 신학교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꿈꾸던 ‘선지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에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다.

지난날 합천교회 부흥사경회의 낮 성경공부 시간에 이근삼 박사님이 고려신학교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중에 가난한 신학생들이 기숙사의 식사비를 마련할 수 없어 멀리 집에서 준비해 온 콩보리밥을 담은 도시락을 동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쓰고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만 울음을 터트리셨고 많은 성도들도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난다. 특히 나 자신도 언젠가는 신학도가 될 것이라는 동류의식에서 있었던지 쏟아지는 눈물을 견잡을 수 없었다. 당시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생각하는 선선님과 성도님들의 ‘선지생도’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나 역시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정들이 없었다면 신학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초장동교회의 고 이의호 장로님께서 초장동 산복도로 판자촌에 ‘초장중학원’이라는 야학을 세우시고 신학생들에게 사례로 장학금을 주시면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가난

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셨는데 그 곳에서 선배들과 함께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었다. 가난한 신학생으로 도움을 받으면서도 역시 가난한 야학생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보람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당시의 초장중학원 출신 학생들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 사모가 된 분들도 있었다.

### 방황과 결혼

계속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학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해방 직후의 대지주의 후손들이 농지개혁 등으로 흔히 그러했지만 당시의 우리 집안의 가세도 급격히 기울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공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나는 계속 어려운 형편에 학업에 충실할 수 없어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2학년 1학기 말에는 신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였다. 모든 일을 접고 방학 때에 혼자서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가 며칠 동안 금식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매달렸다. 예배 때마다 주시는 적절한 은혜의 말씀과 기도와 간증들을 통해 계속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얻어 내려왔다. 그 후에 한 번은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 휴학을 해야 하는 형편에 아직도 알 수 없는 어떤 분께서 대신 등록금을 납입해 주셔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정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우신 고마운 그 분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다녀가신 것으로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토록 힘겹고 외로웠던 대학생살에 오아시스와 같은 위로와 새 힘이었고, 평생토록 신앙과 사명의 마라톤 경주에 신실한 페이스메이커와 헌신적인 동지로서 오늘까지 함께 달려온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총학생회의 회장과 회계를 맡아 함께 일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하며 신뢰를 쌓아갈 수 있었던 같다. 그러나 신학과

동급생이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 원종록 목사님께서 학교의 교목이셨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웠다. 사실상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하셨고 서로의 갈등도 있었지만 주님의 공활하심이 없었더라면 그 위기들을 넘을 수 없었을 것이다. 60년대의 고된 전도사 생활을 경험한 부모로서 딸에게는 가능한 그런 힘든 환경을 피하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교제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신앙의 부모와 기도해 주는 가족을 두지 못한 나로서는 목사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다. 마침내 교제를 시작한지 7년째인 신학대학원 3학년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 이후에 장인 원목사님을 1년간 부목사로서 그리고 20여 년간 협동목사로서 늘 가까이 모시면서 교회 목회자와 교단 총회장, 그리고 학교 이사장으로서의 아버님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아버님으로부터 나는 고신인의 전형적인 신앙과 생활, 교회와 성도를 위한 목자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고신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한 열정과 헌신을 배울 수 있었다. 사랑하는 원종록 목사님은 내 평생에 있어 신앙의 아버지이다. 내 신앙의 여정에 장인어른의 은덕과 장모님의 사랑은 큰 언덕과 넓은 바다이었다. 고향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다만 기도할 뿐이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는 말씀의 약속만을 붙들고 기도해 온 결과 많은 세월이 지나고서야 어머니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도 늦게야 신앙고백을 하심으로 구원받아 두 분께서 모두 천국에 가셨다. 그리고 대학교수로 재직하시던 형님도 근무하던 학교에서 복음을 받고 장로 딸과 결혼하여 집사가 되셨고, 누님은 권사가 되시고, 자형도 장로가 되셨다. 지금은 모든 가족과 자녀 손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어 가족사에 새로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다. 정말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었다.

신학교수가 된 이후 무엇보다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또한 학교 행정을 위한 보직을 맡아 봉사함에도 힘든 경우들이 있었다. 항상 개인 행위의 문제보다는 원리 훼손으로 인한 가치 붕괴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때로는 크고 작은 일들로 애매한 곤욕을 당하기도 하였고, 부당한 오해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나의 부족과 실수도 있었을 것이며 혹 그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용서를 빈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한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셨고, 그 모든 시련 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원리를 따라가면서 좀 느긋하게 참아 기다리면 결국은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친히 정리해 주셨다.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며 설명하였고 가능할지라도 결정적인 반격은 피하면서 항상 마지막 대화와 회복의 길은 열어두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공적인 법과 원리도 허물어져 버릴 때는 일단 모든 것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만날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마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백한다.

내가 교수로서 평생 가르치고 섬기던 그 모든 현장은 실상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고 섬기시는 신앙의 학교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치열한 싸움의 대상은 여전히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지난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고 인도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절친한 선후배와 친구들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더라면 오늘 나는 여기에 서있지 못하였을 것이다.

## 2. 학문의 여정

### 배움

1971년 처음 송도 교정에 들어섰을 때 고려신학교가 4년제 정규대학으로 인가를 받은 직후였기에 아직도 대학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 시설과 환경은 너무도 열악하게 보였다. 차가운 송도바다 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한 산중턱의 비포장 황토 평지에 검은 기와지붕을 올린 기다란 두체의 건물이 전부였다. 그러나 입학시험으로 면접을 보았을 때에 시골 교회에서 들어왔던 전설 같은 산 순교자 한상동 목사님을 위시해 하늘 같이 우러러 보았던 신학 박사님들 앞에 섰을 때의 그 느낌은 감격과 황홀 그 자체였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했다. 신입생들은 대학 신학과 제1기생으로서 모두들 큰 꿈과 자부심을 가지고 입학하였다. 신학공부에 뜻을 두고 의기투합하였던 강영안, 이신철 등과 함께 때마침 화란의 유학을 마치고 부임하신 차영배 교수님께 사사하여 라틴어를 무료로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 외에 자발적으로 대학생으로서 폭넓은 기독교적 교양지식을 스스로 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레포르만다”(Reformanda)라는 모임을 만들고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각 분야별로 조를 나누워 정기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그 후 최갑중 선배를 중심으로 모임이 보다 축소 내실화 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연구 발표한 내용을 필경하여 복사한 보고서를 신문처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다. 나도 당시 서구 대학사회의 이슈였던 “Student Power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기억이 어렵듯이 난다. 제1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일할 때에는 “미스바”라는 학술지를 창간하여 교수논단과 학생논단 그리고 학생들의 문예작품들을 담아 출판하였고, 임기 중에 제2호까지 출판하였고 “미스바”는 그 후에도 전통적으로 총학생회의 주요 사

업으로 계속 발간되었다.

### 저항

당시 신학과를 졸업하면 신학사(Th. B.) 학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학부에서는 신학예비 교양과목만 배우고 신학전공과목이 거의 없었으며 특히 홍반식, 이근삼, 오병세 박사님들로 부터는 전혀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학생 대표로 교무회의 앞에서 이를 강력히 건의하였고 전례 없는 학생들의 당돌한 요구에 당시 한상동 학장님께서 한번은 대화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시기도 하셨으나 결국 수용해 주셔서 각 신학 분야의 서론 또는 개론 과목들이 학부에 개설되어 신학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물론 학부과정에서도 한부선 선교사님, 차영배 교수님, 김성린 교수님, 박성복 교수님, 안영복 교수님, 손봉호 교수님들로부터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 신학의 학문적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학 3학년 때에는 군사정권의 정치적 혼란과 전국 대학가의 반정부 데모들로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기였다. 서부경찰서 형사들로부터 학생회장인 나도 감시와 추적을 받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점점 군사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대해 감에 따라 우리도 비밀리에 송도제일교회에서 모여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진리와 정의를 말하는 신학도들로서 정부의 정치적 불의를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다음날 수업을 임의 중단하고 기도회 등을 통해 반정부 운동에 참여한다는 결정을 하고 나왔는데 학교 당국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이에 이미 학교의 임시휴업을 공고해 버림으로써 거사(?)는 무산되어 버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공부에 뜻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 아쉽게도(?) 하나 둘 다른 대학으로 떠나 버렸다. 나 역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문적 기초와 폭을 넓히겠다는 명분으

로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는 서울 모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마쳤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으신 여러 교수님께서 저를 차례로 불러서 나의 학문적 외도(?)를 극구 만류하고 설득하시는 바람에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도 조금은 있지만, 신학대학원에 바로 진학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신학대학원에서 세 박사님을 위시하여 허순길 교수님, 박성복 교수님, 양승달 교수님, 하도례 교수님 등으로부터 본격적인 신학 수업을 받았고, 당시에 한상동 원로목사님과 최해일 담임목사님이 계시던 부산삼일교회에서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하였다.

### 전공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직후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단독으로 부산 시내 안에 개척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강도사였던 나를 담임 교역자로 초빙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고신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처음으로 신학 석사(Th.M.) 과정의 대학원 인가를 받았고 이근삼 교수님께서 조직 신학을 전공하도록 권유하셨다.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던 터인지라 교수님의 권고를 따라 대학원 석사과정에 바로 진학을 하였다. 이때부터 교회봉사는 대연중앙교회 대학부를 주일에만 지도하기로 하고 송도 학교 인근으로 이사하여 전적으로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하였다. 이근삼 박사님으로부터 집중적인 수업과 지도를 받으면서 많은 분량의 방향 있는 독서와 매 학기마다 팀페이퍼(term paper)로 논문 형식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심으로 논문작성과 신학연구의 기본적인 훈련과 자세를 가다듬게 해 주셨다. 특히 모든 신학의 분수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경관에 대한 교수님의 집중적인 지도는 “현대복음주의 성경관 논쟁: 성경 무오와 권위를 중심으로”라는 석사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그 후 내가 유학하여 성경의 권위와 역사비평에 대

한 신학박사(교의학) 학위논문을 쓸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 강의

대학원을 졸업한 1980년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서면교회의 부목사로서 그리고 학교에서는 “칼빈주의”, “성경개론”, “기독교 교리”, “기독교 윤리” 등의 과목을 강의하였다. 1982년 3월에 이근삼 교수님의 뒤를 이어 조직신학 분야의 전임강사로 임용을 받게 되었고,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친히 강의해 오시던 조직신학의 중요한 과목들인 “조직신학(교의학) 서론”, “신론”, “교회론”, “종말론” 등을 물려받아 강의하였다. 그 후에 신학과에 “변증학”, “개혁주의 성경관”, “이단 사상연구”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쳤고,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칼빈의 신학”, “언약신학”, “일반은총론”, “성경의 권위와 해석”, “성찬론 연구” 등을 그리고 선교대학원, 여자신학원에서 “교회와 성례론” 등의 여러 교의학 관련 과목들을 가르쳤다.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처음으로 “칼빈의 신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칼빈신학 자체에 대한 연구를 강조해 왔으며, 많은 대학원생들이 칼빈에 관한 학위논문을 연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던 것은 참으로 보람 있는 교육적 열매였다.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곧 신학자로서 연구하는 것이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여 열심히 가르쳤다. 매일 하루 분량의 강의를 위해 하루 전에 밤을 지새우다시피 연구와 준비에 전력투구하였다. 교수로 임용 받은 초기에는 당시 동료 교수들 끼리 “요즘 우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말하던 지칠 줄 몰랐던 열정이 그렇다. 초기에는 강의 주제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다 소개하고 모든 깊이를 다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다. 급히 연구한 설익은 것을 열심히 하나만으로 가능한 많이 전달하려 하였으니 학생들이 제대로 잘 소화할 수 있었을는지 지금 생각하니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에도 강의 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지 않고서는 강의실을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없다. 사실은 이제야 강의가 즐겁고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겠는데 은퇴해야 한다고 한다.

### 교회문제연구소

평소에 “교회를 위한 신학”을 강조해 오신 이근삼 교수님은 교회와 평소에 “교회를 위한 신학”을 강조해 오신 이근삼 교수님은 교회와 신학을 연결하는 실천적 봉사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 이 박사님은「교회문제연구소」소장으로서 조직신학의 목회 실천적 적용을 위해 목회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와 각종 목회 세미나와 평신도 대학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셨다. 나는 연구간사로서 그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당시에 각종 세미나를 기획하면서 강단교류가 없는 교단의 목사를 초빙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다양한 이론들을 접하고 비판적으로 연구해야 할 대학 연구소의 연구기능을 내세워 교회성장세미나에 통합과 감리교의 대표적 인사들도 초빙하였다. 한 번은 한경직 목사님을 초빙하였는데 공항에서 호텔 숙소로 모시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곳에서 오라고 했으면 건강 문제로 오지 않았을 것이나 고려파가 오라고 해서 만사를 제치고 왔다”하시면서 피곤한 몸으로 바로 침대에 누워 휴식하시던 모습을 기억한다. 고려파 신학교의 초청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셨다. 몇 년 후에 한 목사님이 종교 노벨상으로 알려진 템플턴상을 축하받는 자리에서 먼저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의 우리 학교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던 당시 한 목사님의 마음을 다시 읽을 수 있었으며 그의 겸허한 인격에 새삼 감동한 적이 있다. 나중에 신대원의 천안 이전과 함께 교회문제연구소를 넘겨주고 대신에 대학에 기독교사상연구소를 설립하여 이단과 문화 및 타 종교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

는 보다 폭넓은 연구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연구소를 섬기던 그러한(재거) 경험들에 기초하여 교무처장으로 일할 때는 기독교대학의 지역 사회에 대한 지적 봉사를 위해 각 단과대학 마다 연구소를 개설하고 지원하여 각 전공 분야에서 교회와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독려한 바 있고, 또한 개혁주의학술원을 운영할 때에도 다른 교단의 저명한 칼빈 학자들을 지도위원로 추대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각종 세미나에도 외부 강사를 폭넓게 초빙하여 학문적인 폭과 저변을 넓힐 수 있었다.

### 유학

1986년에 박사학위를 위해 학교의 허락을 받고 남아연방공화국 포체프스트룸 대학교에 3년간의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지도 교수이셨던 루디 슐츠(Ludi Schulze) 교수님은 스위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연구(1967년『*Cavin's Reply to Pighius*』라는 책으로 출판)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 원전에서 남아프리카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하신 저명한 칼빈학자이셨다. 나는 석사학위논문에서 1970년대 후반에 시작하여 20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성경 무오를 둘러싼 미국 복음주의 안의 성경관 논쟁을 다루었다. 그 논문에서 성경권위 위기의 실제적인 원인은 성경의 인간성에 대한 일방적 이해와 역사비평(historical criticism)의 수용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박사학위논문을 “Historical Criticism of the Bible: A Critical Examination of Its Validity as a Recognized Principle for Biblical Hermeneutics”라는 제목으로 전통적 성경 권위관을 옹호하기 위해 해석학적 원리로서의 역사비평 자체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학계에서 이전에 연구한 사례가 없는 최초의 연구 주제를 다루거나 단지 몇 권의 고전적인 책에 대한 분석 평가만으로도 가치 있는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시

에 진행 중이던 성경 권위와 무오에 대한 논쟁과 관련한 수많은 논문과 책, 그리고 역사비평의 수용 여부에 대한 신학적 논쟁과 관련하여서는 전공을 넘어서는 성경해석학 분야의 책들까지 모두 섭렵해야 하였기에 힘든 연구 작업이었다. 매장마다 완성된 논문을 일정을 따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면 상세히 점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들을 토론하며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깨우치고 배울 수 있었다. 교수님 자신의 신학적 주장과 관계없이 나의 신학적 논지를 잘 입증하면 문제없다고 격려하시면서 제자의 신학적 주장을 경청해 주셨다. 때로는 교수님의 초청으로 즐거운 축제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택에 초청하셔서 대학 음악과에서 지휘를 전공하신 교수님의 설명과 함께 조금의 와인을 마시며 모차르트의 음악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있었다. 귀국한 이후에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을 설립하고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을 때 기쁨으로 수락해 주셨으며, 칼빈 연구 세미나에 특별 강사로 초빙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지만 병환 중에 계신 사모님을 남겨두고 오실 수 없어 매우 서운하고 아쉬웠다. 그러나 교수님의 은퇴기념 논문집에 제자로서 칼빈에 관한 논문을 헌정할 수 있어 기뻐다.

### 개혁주의학술원

1999년 미국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교의 「헨리 미터 칼빈연구 센터」(Henry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에서 연구 교수(Faculty Research Fellow)로 초빙을 받아 1년간 개인 연구실 사용을 허락받고 칼빈신학 전반에 관한 연구와 연구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헨리 미터 센터는 세계 최상의 칼빈연구소로서 칼빈 저술들의 원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칼빈과 관련된 단행본들과 각 나라의 말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칼빈연구자료를 총망라하여 소장

하고 있다. 특히 모든 신학도서와 학술지에 발표된 칼빈과 관련한 모든 논문과 서평 등을 모두 복사하여 파일로 대형 파일함에 정리해 두었고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하여 연구소 안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사실 그 연구센터는 칼빈대학과 신학교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모든 전공의 대학생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교수들이 이 연구센터에서 각자의 전공을 개혁주의와 연결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여러 가지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또 다른 하나의 한국 헨리 미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바로 개혁주의학술원의 설립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오늘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이 칼빈과 개혁주의신학을 위한 한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특별히 오늘의 학술원이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교회들과 목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잊을 수 없다. 한국의 역사적 개혁주의 장자교단을 자처하는 고신교회와 개혁주의를 교육이념으로 하는 고신대학교를 설립한지 오랜 역사가 지났지만 개혁주의를 연구할 수 있는 전문 학술연구소가 없었다. 2005년에서야 비로소 학교와 교회를 위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부흥을 위해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봉사할 수 있는 개혁주의학술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한 많은 국제세미나와 국내세미나를 통하여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주제별로 체계적인 칼빈신학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연구 결과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로 계속 발간해 왔다. 그동안 칼빈 학술 세미나에 초빙을 받은 세계적 칼빈 학자들은 Wim Janse, I. John Hesselink, W. van't Spijker, B. J. van der Walt, John L. Thompson, J. E. Olson, Robert Letham, J. W. Maris, 와타나베 노부오 등이며, 또한 많은 저명한

국내 칼빈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진정한 기독교대학을 건설하기 위해 개혁주의 학문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수님들의 참여로 각자의 전공 분야를 개혁주의신학과 접목할 수 있는 연구와 발표의 장을 마련하였고,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모든 각종 세미나를 교육의 기회로 제공하였다. 개혁주의 교회건설과 개혁신앙의 확산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한 <갱신과 부흥 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평신도들을 위한 <개혁신앙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지역교회들을 방문하는 연속 강의(6강)로 2천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학술원이 운영하는 개혁주의전문도서관에서 칼빈과 교부들의 원전을 위시하여 5천여 권의 칼빈과 개혁주의 관련 연구전문도서와 많은 연구논문자료들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1999년 미국칼빈학회에 참여했을 때 미국칼빈학회장을 역임한 존 헤슬링크(John Hesselink) 교수로부터 “한국에는 칼빈주의자들만 있고 정작 칼빈은 없는 것 같다”는 충평을 듣고 공감한 바 있어 앞으로 개혁주의학술원을 설립하면 칼빈신학 원전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전개해야겠다고 생각한 바 있었다. 그래서 대학부에 라틴어 수업을 특별히 개설하도록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개혁주의학술원을 개원하면서 칼빈 원전에 대한 연구를 권장하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 고서적 책방을 뒤져 거금(?)으로 최대한 칼빈과 교부들의 라틴어 원전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기독교강요 최종판』 원전을 영어판과 불어판을 대조한 CD를 출판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공개하기도 하였다. 특히 개혁주의학술원에서 모든민족교회(최정철 목사)의 전적인 지원으로 『칼빈작품전집』(*Calvini Opera Omnia Database*) 제작을 시작하여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수년에 걸친 헌신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완성하여 출시하게 된 것은 한국과 세계 칼빈학계의 칼빈연구를 위한 큰 기여와 쾌거였다.

이러한 노력들로 개혁주의학술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널리 알려졌고, 국내 다른 신학대학들도 자극을 받아 학술원을 탐방하고 간 후에 각자 칼빈 또는 개혁주의 연구소들을 개설하였기에 학술원은 한국개혁주의 연구의 실제적인 촉매와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원의 그 모든 연구활동은 ‘모든민족교회’와 ‘사직동교회’를 위시한 많은 교회들의 재정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근삼 박사의 대를 이어 근 30년간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사상을 강의해 온 터라 선배 또는 졸업생 목사님들께 “제가 강의해 온 개혁주의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니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편지 한 통과 전화 한번 한 것에 60여 교회가 지원을 해 주었다. 그래서 학교의 재정적 지원 없이 처음부터 모든 연구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학술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회의 관심과 지원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학교의 많은 구성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까지 학교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개혁주의학술원을 설립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었다.

### 3. 섬김의 여정

#### 총학생회

고신대학이 정규대학이 된 후에 신학과 외에도 비정규과정의 연수과가 있어 학부과정의 학생들은 약 200여명 정도가 제학하고 있었다. 2학년 말 경에 총학생회 선거가 있었고 출마 소견 발표를 위해 학생들이 앞에서 열심히 지지를 호소했던 기억이 새롭다. 회장의 책임을 따라 총학생회 사업에 몰두하였고 제1회 대학축전과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대학으로서의 건전한 학생 문화와 낭만을 추구하는 일에 앞장섰고, 학교사랑을 위한 교정 나무심기 운동과 농어촌교회 돕기 운동 등

으로 분주하고 후회 없는 즐거운 대학시절을 보냈다. 당시에 함께 하던 임부원들이 지금도 모두 교수님들과 목사님들로서 학교와 교단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총동문회

이전에는 7년 과정의 신학 전공만 있다고 생각했었기에 대학 총동문회는 없고 신학대학원의 총동문회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 다른 일반 학과들의 졸업생들이 생기고 신학대학원이 대학 학부와는 사실상 모든 학사 운영이 독립되어 있었기에 대학의 총동문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졸업생들의 친교 뿐 아니라 앞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후원에 앞장 서야 할 대학 총동문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연히 나는 정규대학의 제1회 입학생과 졸업생이었고 재학 시에 총학생회장이었던 까닭에 창립준비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당시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도 모든 학사와 운영이 대학 본부와는 독립적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졸업생들끼리 전혀 교제가 없었다. 그래서 창립대회를 앞두고 이미 동창회를 구성해 왔던 의학과와 간호학과를 설득함으로 모든 학과 졸업생들로 구성하는 총동문회를 구성하였고 총회에서 초대 총동문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우선 졸업생 명부와 연락처를 조사하여 동문 주소록을 제작하는 일과 각 학과별로 동창회를 조직하는 일과 미국 호주 등지에 해외 동문회를 조직하는 일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고신동문장학회를 구성하여 장학금 모금을 시작하였다.

### 고신동문장학회

물론 총동문회가 지금까지 학교에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전달해 왔지만, 최근에 지속적이며 투명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신동문장학재단을 인허받기로 하고 우선 고신동문장학회를 새롭게 구성

하였다. 총동문회로부터 장학재단 이사장 추대에 대한 부탁을 받고도 확답을 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또 다시 장학재단의 설립기금을 마련하는 일에도 앞장서지 않을 수 없었다. 장학재단 설립기금으로 천만원을 기부한 참빛교회(김윤하 목사), 등촌교회(문제섭 목사), 성안교회(윤장운 목사), 모든민족교회(최정철 목사), 가나안 수양관(계춘희 원장), 김해 아름다운치과(임석주 원장)에 깊은 감사를 돌리며, 차형수 원장(센텀가정의원)을 위시한 의학과 출신 동문교수들의 지원에도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학교에 매학기 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면서 장학재단 인허를 위한 설립자금 확보를 위해 계속 모금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 행정

학교에 제직하는 동안 여러 행정 보직을 맡아 일하였다. 기독교대학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 기독교사상연구소 소장, 교무처장, 기획실장, 신학대학 학장, 선교목회대학원 원장, 개혁주의학술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 모든 보직을 맡았을 때의 봉사의 초점은 항상 진정한 기독교대학의 실현을 위한 역할 수행에 있었다. 사실 역대 총장들로부터 부총장직을 맡아달라는 간곡한 제안을 두 번이나 받았지만 정당한 역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단호히 거절한 바도 있다. 한 번은 이사회에서 대학원장으로 결정되어 이사장께서 임명장을 전달하려 오시는 날 아침에 내가 가야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끝내 그 보직을 사양한 적도 있다. 그러나 책임을 맡았을 때는 부족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였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마무리해서 제출해야 하는 일 때문에 교무처장직의 제안을 받고도 2개월을 버티며 사양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학교의 상황이 88년 학생소요사태로 학교 안에서 교수회의를 모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에 계속

좌시만 할 수 없어 결국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결국 학위논문 제출은 2년이나 연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잠재우고 다시 모든 구성원들이 기독교대학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우선 “기독교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학칙에 있는 기구로 만들어 위원장직을 맡아 대학 당국과 직원 그리고 교수와 학생 대표들이 함께 모여 학교의 중요한 방향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만과 의혹을 가진 운동권 학생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스스로 책임 있는 참여를 하도록 해주어야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에게 “기독교대학=취업”이라는 방정식을 내세워 학생들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진정한 기독교대학을 실현하는 것임을 때마다 역설하였고, 그 후에 학생들이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도 후보들이 모두 기독교대학의 실현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기독교대학

기독교대학으로서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고 건강한 학풍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학생들이 기독교신자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내가 유학을 떠난 직 후에 갑자기 자연과학부에 여러 학과들이 준비 없이 증설되었고 입학 자격에 신급제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일부 학과의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먼저 신학부(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교회음악과)만이라도 학습 이상의 교인으로 입학 지원자격을 제한하도록 설득하였다. 명실상부한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동일한 신앙고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고신대의 교육목적인 기독교 학문연구와 기독교적 문화창달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이며, 고신대를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 특성화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인 대학생존의 구체적인 대책임을 강조하였다. 1992년도부터 신

학부의 신입생 자격을 학습교인 이상으로 하였고, 1993년도는 이 원칙을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자연과학부 학과에도 적용하였다. 그리고 발로 뛰면서 기독교대학을 앞세워 공격적인 홍보를 하였고, 합법적으로 신자들에게는 8%에 해당하는 면접점수에 신앙과 인격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기독교신자 학생모집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3학년도 전체 신입생(620명) 모집의 신급현황을 보면 세례교인이 76%, 학습교인이 22%, 의예과 때문에 원입이 2%가 되었고, 동시에 신급제한을 하지 않았던 의예과도 이전과는 완전히 역전되어 세례교인이 71%, 학습교인이 1%, 원입이 28%가 되었다. 오히려 학생 지원율도 올랐고 입학학력고사의 성적도 조금씩 상향되었다. 당시에 경건회 도중에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갑자기 전기불이 꺼져 버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어두운 강당에서 4절까지 더욱 우렁차게 찬송을 불렀을 때 너무도 감격하여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유학 후에 귀국하여 경건회에 참석하였는데 학생들이 신문을 꺼내들어 읽고 있고 여기저기서 잡담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용기를 얻어 당시 이근삼 총장님의 결단에 힘입어 의예과도 학습교인으로 입학지원 자격을 제한하였을 때 이를 반대하는 헌법소원이 한 시민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었다. 당시에 긴급히 서울에 있는 기독교대학들의 교무처장 연석회의를 요청하여 기독교대학의 존폐와 관련된 사항으로 적시하며 대학의 고유한 교육이념에 따라 신입생 선정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였다. 그리고 마침 고향 교회의 대선배이신 고 김광일 변호사(장로)를 서울로 찾아가 헌법재판소 사건의 변호를 부탁하였고 감사하게도 기꺼이 수임을 해주셨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헌법소원은 기각되었고 계속 기독교신자 즉 학습교인 이상을 신입생 자격으로 견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몇 년 전 복음병원 부도사태로 학교가 최악의 위기와 혼란

에 처하고 신입생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부 신입생 미달 학과의 생존을 염려하는 학교 당국과 해당 학과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신급제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정말 힘든 시기이었다. 당시에 내가 보직을 맡았던 것도 아닌데 격한 논쟁으로 얼마나 힘들고 정신이 없었던지 하루는 식사도 잊어버리고 여러 수업을 마치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 식사한 다음에 그만 정신을 잃고 앞으로 쓰러져 버렸다. 엠블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달려가던 기억이 새롭다. 당시 학교가 팔려간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신학과 교수회와 교목실운영위원회에서 거듭 논의한 결과 학교 안팎의 혼란과 갈등과 더불어 학교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에서 신입생 미달 학과에만 한시적으로 신급제한 적용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학교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시 학교 당국이 이러한 제한적 결정을 제대로 시행하거나 감독하지도 않았고 현실적 필요에 의해 방치해 둬으로써 결국 많은 불신자들이 입학하게 되었다. 아직도 나의 변함없는 소신은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의 전 구성원들이 동일한 신앙으로 단일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야만 하고, 이는 진정한 기독교대학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 통합

한 가지 더 오래 전부터 내가 시종일관 즐기치게 주장해온 것은 대학과 신대원의 상생을 위한 통합이다. 이는 신학교육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견지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늦게나마 서로의 통합을 위한 공감대가 교단과 학교 안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방향과 장래에 대하여 교단적으로 지금도 논란이 많지만 정치적 논리를 따라 일방적이거나 편파적인 논의와 결

정을 하고, 학교 교육의 당사자이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은 정작 실제적인 토론과 결정의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을 지켜보는 안타까움이 있다. 왜 교단의 많은 지도자들이 학교 구성원이 참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전해듣기만 한 파편적인 정보와 지식만으로 임의 판단하여 학교를 자신들의 결정을 따라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교수들은 다만 금번 총회에서라도 바람직한 결론이 나오길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다.

### 한국개혁주의연대

2013년 11월 18일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위에 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건설과 부흥을 위해 <한국개혁주의연대>를 창립하였다. 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는 이전의 개혁주의학술원의 운영과 사업을 거울로 삼아 연대의 방향과 활동을 새롭게 설정해 나갔다. 한국의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 노선의 세 교단 즉 고신, 합신, 총신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 신학자, 기독교인 학자 및 기독교인 전문가를 회원으로 영입하였다. 2013년 11월 18일에 서울에서 200여명의 발기인들과 함께 창립대회를 개최하였고, 창립기념강좌에서 “한국개혁주의연대의 사명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현재 나는 자원하였던 총무로 섬기면서 2014년 11월에는 제1회 학술대회를 “한국장로교회의 성찬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였다. 먼저 해외 초빙 강사를 통해 칼빈의 성찬론을 중심으로 장로교회의 성찬논쟁을 평가하였고 나는 현 세 교단의 성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교수회원들께서 모범적인 성찬 설교문을 예시하였고, 칼빈의 성찬론에 근거하여 새롭게 작성한 성찬 예식문을 가지고 참석한 회원들이 함께 은혜로운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허물어져 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개혁주의연대를 하나님께

서 분명 기뻐하신다고 믿지만 앞으로 우리의 연약을 더고 날로 새롭게 일어서야 할 것이다.

### 교회 봉사

교회적으로 봉사한 일은 주로 각종 신앙 특강과 설교 봉사였다. 수많은 교회들의 초빙을 받아 설교를 하였고 새 목사가 부임할 때 까지 1개월에서 4개월에 이르기 까지 주일 강단을 맡아 설교목사로서 섬긴 교회들이 많았다. 학생과 청년들의 각 수양회와 해외 교회들의 사경회를 인도하는 소중한 경험들도 있었다. 이러한 설교봉사를 통해 자신이 은혜를 받고 교회와 영적으로 교감하는 귀한 체험들을 가질 수 있었다. 교회의 각종 세미나의 강사로 초빙을 받은 적도 많으며, 특히 1995년에 중국 흑룡강성과 연변의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한 두 주간 집중 강의를 할 때 그 분들의 진리를 사모하는 열심에 크게 감동한 적도 있다. 부족하지만 평생 때마다 교회를 위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 전도사로서 부산삼일교회와 대연중앙교회, 그리고 협동목사로서 부산서면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부족하였으나 개인적으로 감사와 기쁨이었다. 지금도 사직동교회를 기관목사로 함께하며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

특별히 약 40여 년 전에 목사가 되기 위해 쫓겨나듯이 고향집을 떠난 저가 2005년 고향 ‘합천교회 설립100주년 기념예배’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감격은 잊을 수 없다. 합천교회의 긴 역사에 처음으로 저가 목사가 되었고 당시에 전도하여 함께 학생신앙운동을 했던 친구 3명이 나중에 모두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 후에 다시 부활절에 합천군 전 지역 교회들의 부활절연합예배에 설교를 맡아 고향을 방문할 수 있었다. 절망 속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는 달리 이제 고향민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 달

려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남다른 감격에 젖어 눈물 지우던 기억이 새롭다.

### 회고를 마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지난 50여년의 신앙여정과 33년의 학문과 섬김의 여정을 시간에 쫓겨 그저 문득문득 생각나는 대로 순서도 없이 되돌아보았다. 광야의 길 같은 인생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저를 때마다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사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저가 신학생으로 공부할 때든지, 남편과 아빠로서 가족과 함께 할 때든지, 유학생으로 해외에 살든지, 목사로서 목회를 돕든지, 교수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맡든지, 하나님은 그 때마다 저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일터와 아름다운 일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내 인생 여정에 길목마다 때마다 함께 걸어준 친구, 동료, 선후배, 제자들, 성도들,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였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은퇴를 한 학기 앞두고 큰 수술을 하면서 지금 불러 가셔도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셔서 제 2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제 또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새로운 기대를 가진다. 무엇보다 원하기는 이전보다는 좀 더 주님과 가까이 걸어가고 싶다. 좀 더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기뻐하며 살고 싶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의 시구처럼 “머언 젊음의 뒤편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평강 중에 서있을 수 있기를 바란다. 누가 이렇게 말하였는데 나의 마음을 잘 담아내었고 볼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당신 역시 더 많은 친구를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